

여섯차례 북경 방문으로 꿈 이룬 조선 미생 조수삼의 세상 유람기



조선 지식인이 세상을 여행하는 법

김영욱 지음

조선 후기 승문원 서리를 지낸 조수삼은 한미한 중인 출신임에도 다재다능한 능력으로 이름을 떨친 지식인이었다. 그는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후반까지 시로써 이름을 떨친 중인이었다.

그는 재능을 인정받아 당시 세도가였던 풍양 조씨 가문의 조인영, 조만영 형제의 총애를 받았고 이들 형제를 통해 김정희 등 당대 세도가들과도 교분을 나누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문적 성장과 처지를 잘 알아준 이덕무와는 사승 관계로 지냈으며, 비슷한 신분의 사람들끼리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를 결성해 평생을 동고동락했다.

타고난 재능을 문벌가문으로부터 인정 받은 조수삼은 여섯 차례나 북경을 방문하는 등 조선 밖의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당시 동아시아의 허브였던 북경에서 청나라 학자들과 교류했는데 정진갑, 유희해, 무공은 등과 시와 서신 등을 매개로 특별한 인연을 만들었다.

김영욱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이 펴낸 '조선 지식인이 세상을 여행하는 법'은

조선의 학예를 주름잡던 조선의 문사들 그리고 청나라 학자들과 교분을 나눴던 중인 출신 지식인 조수삼에 관한 이야기다.

“멀리 밖으로 나가서 노닐고픈 꿈”을 가졌던 조수삼에게 중국 여행은 인생에 큰 자극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조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화려한 잔치, 거리 풍경, 연희 등 처음 북경을 접하고 느낀 경이로움은 그의 인식의 폭을 넓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또한 조수삼은 ‘주변’으로 무시를 받는 ‘외이(外夷)’들을 마음으로 여행하며 이전의 생각들을 바로잡는다.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극지방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고 살아가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깨달음에 이른다. 물론 여행을 매개로 문화의 다양성을 긍정하는 상대주의적 관점을 일점 부분 수용하기도 했다.

“에나 지금이나 ‘여행’만큼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단어도 흔치 않을 것이다. 여행의 이유는 사람마다 처지의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하지만 그 출발점, 즉 내면의 상태는 모두 비슷하다. ‘지금의 일상에서 벗어나기’와 ‘낯선 것에 대한 동경’이 사람들을 여행으로 이끈다. 삶에 지칠 때는 더욱 내가 사는 공간 밖으로 나가서 다시 나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그네들의 바람이다.”

〈역사의 아침·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대체없이 시작된 ‘플라스틱없이 살기’ 프로젝트 체험담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살기로 했다

산드라 크라우트 바솔 지음

만약 우리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과 비닐 같은 합성수지 제품을 모두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사람들은 거의 알몸 상태로 빈 공간에 내던져지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영화 ‘플라스틱 행성’에서는 세계 각지의 가정집에서 플라스틱 물건을 모조리 집앞으로 집어내거나 전사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미국과 일본, 인도 등 어느 가정집에서 나온 플라스틱 물건들이 각각의 가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절대적이다.

오스트리아 출신 산드라 크라우트 바솔이 펴낸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살기로 했다’는 실제로 집 안의 모든 플라스틱을 내놓는 프로젝트 체험담이다. 첫 번째 ‘플라스틱 없는 장보기’에서부터 산드라 가족은 혹독한 좌절을 맞는다. ‘그래도 친환경 전 문판매점에서는 필요한 것들을 웬만큼 살 수 있을 거야’라는 태도 또한 얼마나 안일한 것인가도 깨닫는다.

과연 산드라 가족은 이 프로젝트를 온전히 이행했을까? 상상도 잘 안 되는 ‘플라스틱 없이 살기’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냉정한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들 가족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무분별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작은 소득이 될 것이다.

〈양철북·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사랑·사치의 상징 ... 고대 지중해 향수 문화사

사포의 향수

주세페 스키텔라체 지음



“방은 화병의 신선한 꽃향기로 천천히 채워지기 시작한다. 다이아몬드 나리꽃 형태로 넓게 퍼진, 금벌처럼 보이는 크리스탈 화병에는 잠미 다발이 가득하다. 이 모습은 보르게제 미술관의 산드로 보티첼리 그림 ‘여섯 천사와 함께한 성모자’에 나오는 성모 모리아의 뒤편을 가득 채운 꽃들을 떠올리게 한다. 그 어떤 화병도 이 모습의 우아함에는 미치지 못한다.” (가브리엘레 단눈치오, ‘기쁨(II piacere)’ 중에서)

현대 사회에서 향수는 액세서리와 같다.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옷에 따라, 장소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뿌리는 향이 달라진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향수는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기호화한다.

유명 패션 업계는 시즌마다 새로운 향수를 출시한다. ‘투명한 감옥’에 갇힌 이 향수는 여성들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어필한다. 특정한 향기는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이다.

향수를 다룬 책이 출간됐다. 주세페 스키텔라체가 펴낸 ‘사포의 향수’는 고대 지중해의 풍요로운 향수 문화를 조망한다. 나아가 그리스 향수 제조술의 과정, 향료의 사용에서부터 인공적인 향료를 만드는 것까지를 망라한다.

종교의 역사를 고찰해보면 그리스인들은 향료를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했다. 당시에는 신에 대한 봉헌의식, 장례의식이 종교의 영역으로 간주됐다. 이후 향료는 결혼, 만찬, 화장실 용품 등 그리스인들의 다양한 일상생활에서도 폭넓게 사용됐다.

다채로운 향료의 생산과 소비는 문화적 환경과 정치, 사회 구조와 연관된다. 기원전 1세기 호메로스가 쓴 서사시에는 향료와 향수로 인한 후각의 즐거움이 묘사돼 있다. 향기를 추출하고 향유를 조합하는 방식이 시대 상황, 정치 세력과 연동돼 달라진다는 것이다.

기원전 7~6세기에는 엘리트 계급과 화려한 삶을 누리던 계층에서 향료와 방향제를 사용했다. 이후 5~4세기에는 해양무역을 지배하던 도시국가 아테네와, 기원전 3세기 이후로는 헬레니즘 왕국과 연관됐다. 이처럼 향료의 생산과 소비는 시대와 권력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왔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문화사와 철학자의 작품과 사상을 통해서도 향수의 상징과 의미를 포착한다.

고대 그리스 서정시인 사포는 향수를 사랑과 결부해 표현했다. 사과, 미나리 식물과 같이 향기를 발산하는 꽃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현대사회에서 향수는 자신을 표현하는 액세서리로 간주될 만큼 중요한 화장품이다. (광주일보 DB)

축원이 함께한다고 봤다. 또한 사포는 처음으로 향수를 ‘인공적인’ 향기의 형태로 묘사하기도 했다.

반면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향수를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그는 사람 자체에서도 향기가 나는데 인공적인 향기보다는 윤리적인 덕을 배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책에는 향수 제조술의 변천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역사가 테오프라스토스는 고대 향수 제조술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그는 인간의 몸이나 후각 기능과 연관하기보다 식물학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식물이 자라는 토양, 공기, 온도 등에 따라 같은 종이라도 향기가 다

를 수 있다고 봤다. 향기의 근원 또한 꽃뿐만 아니라 잎, 줄기, 뿌리, 수지(송진)에도 분포한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테오프라스토스의 연구는 향수가 “식물학, 윤리학, 자연학, 형이상학, 의학 그리고 정치학과 동등한 차원의 연구대상”이 되는데 일조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책을 읽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든다. 인위적인 향수보다도 소크라테스가 말한 ‘순고한 영혼’이 값비싼 향수보다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산지니·1만3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현대인의 불안과 파국 과감한 필치로 풀어내



회색문헌

강영숙 지음

일상은 매일 같이 반복되지만 더 이상 완전하지 않다. 지진, 폭염, 폭우와 같은 재난과 ‘헬조선’으로 대변되는 자본주의의 폐해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일보문학상, 김유정문학상, 백산에문학상 수상 작가 강영숙의 다섯 번째 소설 집 ‘회색문헌’이 나왔다.

평론가 서희원에 따르면 강영숙은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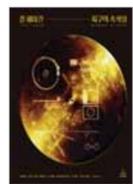
길함을 응시하는 문장의 파카초처럼 명도만으로 이 어두운 시대의 심연을 그려내”는 작가다. 작품집에는 현대인의 일상을 파고드는 불안과 파국의 조짐을 과감한 필치로 풀어낸 8편의 소설이 담겨 있다.

소설 속 인물들의 삶은 일상이 와해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사람들은 끊임 없이 어딘가로 떠나려 하지만, 누구도 이들을 붙들지 않는다. 미친 여자, 점쟁이, 봉사자, 대리기사, 아랍여자, 할머니 등등. 여정을 떠난 사람들은 대부분 스쳐 지나가지만 어떤 이들은 “허락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문턱을 넘어” 말을 걸어오고, 동행하기도 한다.

〈문학과지성사·1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외계 문명에 보내는 지구 메시지 ‘골든 레코드’ 이야기



지구의 속삭임

칼 세이건 외 지음

“안녕하세요. 저는 1977년 지구를 떠나 태양계 밖을 탐험 중인 보이저호입니다. 제 가슴에는 외계 문명에 보내는 지구의 메시지 골든 레코드가 있습니다.”

태양계 전체를 살펴보기 위해 발사된 두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와 2호에는 지름이 약 30cm인 금박을 씌운 LP 레코드판, 일명 ‘골든 레코드’가 붙어 있다.

미지의 외계 문명에 보내는 지구와 인류의 메시지다. 그 안에는 지구를 대표할 음악 27곡, 55개 언어로 된 인사말, 지구와 생명의 진화를 표현한 소리 19개, 지구 환경과 인류 문명을 암시하는 사진 118장이 수록됐다.

‘지구의 속삭임’은 골든 레코드가 기획된 후 제작되어 우주로 보내지기까지의 이야기들을 한 편의 영화처럼 담았던 책이다. 제작에 참여한 칼 세이건(총 책임자), 프랭크 도널드 드레이크(기술 감독), 앤 드루안(장각 감독), 존 롬버그(예술 감독)이 수록된 콘텐츠를 두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던 뜨거운 현장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사이언스북스·2만5000원〉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미시카넷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옵션까지 제공되는 리모델링 시스템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인이 잔 엔지니어와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2중안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종로문화센터 옥상사공
시공장제
해당대학/강원대학교/경북대학교/경남대학교/태백시보건소
양성시립도서관/강화군청/인제군청/부천소방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광주·전남
가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가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체 010-3600-9955

NAVER 주소(이)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